

40 일 했는데, 이제 뭐 하죠?

40 일의 말씀과 기도 훈련도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혹시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기도가 깊이 느껴지지 않았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40 일 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함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입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보다, 마지막까지 말씀 앞에 다시 서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 조금 지쳤더라도 다시 말씀을 펼쳐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마지막까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훈련이 끝난 후에도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40 일이 끝나도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계속되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주,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1. 이번 주 토요일, 8월 29일 목장 모임 있습니다. 주보 내지에 첨부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9월 6일 주일 예배, EM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3. 김종원(하영)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4. 출타 중이신 서민정, 김정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이진교(2) 최상천(9) 조은영(16)	박래석(23) 한정임(30)

주일 예배 2026년 8월 23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피난처 있으니 / 찬송가 70(신) 79(구)

*성서 교독 / 성서 교독문 67 번(잠언 3 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나는 갈 길 모르니 / 찬송가 375(신) 421(구)

기도 / 박래석 집사

성경 봉독 / 요엘 2 장 12-14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내게로 돌아오라 3 / 박화신 목사

찬송 /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 / 찬송가 368(신) 486(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2,4 절 / 찬송가 588(신) 30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제야 왔느냐”고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겉으로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보이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3. 더 놀라운 것은 돌아오라는 명령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회회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24 일
Day 36 (월)

새벽을 깨우는 영혼의 SOS

오늘의 말씀 (시편 119:145-149)

<개역개정>

145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이다

146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49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새번역>

145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146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147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148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149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묵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부르짖다). 도움이 없는 것 같았기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외로움을 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주의 말씀을 믿기에 말씀에 따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요. **그 부르짖음을 따라해 봅니다.**

기도의 초점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내 생각의 복잡함과 염려를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른 아침 내 눈이 떠질 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날이 밝기 전에 주의 약속을 바라보오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공의의 말씀으로 오늘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어 주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내게로
돌아오라

2

호세아 14:1-9

1. 죄도 현실이고, 순종도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너무나 현실적인 유혹이었고, 가인에게게는 자신의 분노와 욕망이 현실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안전과 원하는 삶이 현실이었습니다. 죄란 단순히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과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2. 그러나 순종 역시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 쉽지 않은 실제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하는 더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3.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이 때로는 현실감 없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한 생각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임재를 읽어 가는 것입니다.

4.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앗수르와 우상을 더 현실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란 단순히 죄를 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삶의 가장 큰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읽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돌아오고 쉽지 않은 순종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26일
Day 38 (수)

말씀의 통치 앞에 떠는 거룩한 경외함

오늘의 말씀 (시편 119:155-161)

<개역개정>

155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156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사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157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158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159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161 고관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새번역>

155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156 주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157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158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159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160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161 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뿐입니다.

묵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권력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인도 까닭 없이 박해하는 방백들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떨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수록,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 **말씀의 통치 앞에 떠는 거룩한 경외함을 배워 봅시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나를 좌락편락하려는 세상 권력자들의 큰소리나 핍박 앞에 내가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두려워 떨 대상은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주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눈치 보는 미련함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영적 당당함과 승리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27일
Day 39 (목)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안

오늘의 말씀 (시편 119:162-168)

<개역개정>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163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164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166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167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168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새번역>

162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163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164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165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166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167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168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묵상

시인이 말하는 말씀 안에서의 평안은, 어쩌면 그가 언제나 누리고 있던 현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임을 믿기에, 그는 그것을 주님 앞에 말로 고백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견디어낼 힘을 주기에, 우리는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몸부림을 따라해 봅시다. 하루에 7 번 주님을 찬양할 정도로 찬양과 감사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내게 더 크게 하옵소서! 하루 일과 중 수시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큰 평안'을 강물처럼 부어주옵소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평안으로 사뿐히 딛고 넘어서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28일
Day 40 (금)

잃어버린 양의 노래, 완주의 마침표

오늘의 말씀 (시편 119:169-176)

<개역개정>

169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1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찬양을 흘릴지니이다

172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허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3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 내 영혼을 살려 주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새번역>

169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170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71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172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허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173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174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175 나를 살려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176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묵상

영웅적인 찬양 대신 자신의 방향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이 겸손한 기도가,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이 붙잡아야 할 말씀임을 새겨 봅니다.

부르짖는 기도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 40 일 동안 말씀-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완주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잃은 양처럼 연약하나, 평생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말씀의
궤도 위에 머물렀사오니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8월 25일
Day 37 (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

오늘의 말씀 (시편 119:150-154)

<개역개정>

150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떠나이다

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52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153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 주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새번역>

150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151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152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3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154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묵상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보다는,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라는 호소에 가깝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초점

눈앞의 위협과 부정적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상황보다 훨씬 더 내 곁에
밀착하여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변호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사방에서 나를 압박하는 문제들이 아무리 가까이 밀려올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눈을 들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억울한 내 형편을 굽어살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변호하사 주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